

# 신라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와 수용 경로

이 송 란\*

I. 머리말
II. 신라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
III. 신라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수용 과정
IV. 맺음말

## I. 머리말

경주 계림로 14호분은 1973년 미추왕릉 지구 정화사업을 하던 중 발굴된 무덤으로 3.5m, 너비 1.2m의 적석목곽분이다.<sup>1</sup> 비교적 작은 규모의 무덤이지만 금제감장단검, 화살통 장식, 장식대도, 철검 등의 무구, 금은입사철제안고, 은입사행엽, 등자 등의 기마구, 청동합, 토기 등의 그릇류 등 상당한 수준의 부장품이 발견되었다.

이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찰갑편, 마구, 무구 등의 부장품으로 보아 개마무사로 판단되는 피장자가 착용한 금제감장단검이다. 이 검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지 않는 홍마노 등의 유색 보석으로 감장되고 누금기법으로 장식되어 있다. 검집 측면에는 다른 검에서는 볼

\* 문화재청 문화재감정관

<sup>1</sup> 韓柄三, 『新羅의 金製嵌玉寶劍裝飾』, 『중앙일보』 1973년 12월 3면.

수 없는 P자형과 D자형의 장식판이 달려 있다. 이러한 특징이 있는 검은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Kazakhstan) 보로보예(Borovoye) 호수 근처, 이탈리아 북부 랑고바르드(Langobard) F호묘 등에서 발견되어 그간 막연히 기마민족과 관계된 유물로 간주되어 왔다.<sup>2</sup>

이 글에서는 그간 주목하지 않았던 검은 패용구의 기능을 한 P자형과 D자형의 장식판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분석하여 계림로 금제감장보검의 구체적인 제작지를 밝혀보려 한다.<sup>3</sup> 그간 더 새롭게 확인된 예는 없지만 2개의 패용금구, 즉 쌍각금구가 부착된 도검이 사용된 지역인 중앙아시아, 이란, 유럽의 벽화, 마에조각, 금은기 등의 간접 자료를 통해 발생과 확산과정을 고찰한다면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를 알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연후에 수용 경로로 신라에 기마문화를 전해준 고구려를 주목하고자 한다. 이 검은 기마문화와 관련하여 사용된 무기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와 관계된 자료로서 고구려 고분벽화에 말몰이꾼이나 藝人의 모습으로 등장하는 중앙아시아인들의 존재를 통하여 중앙아시아와 고구려의 교류관계를 규명하려 한다.

## II. 신라 계림로 14호분〈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

### 1.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특징과 패용 방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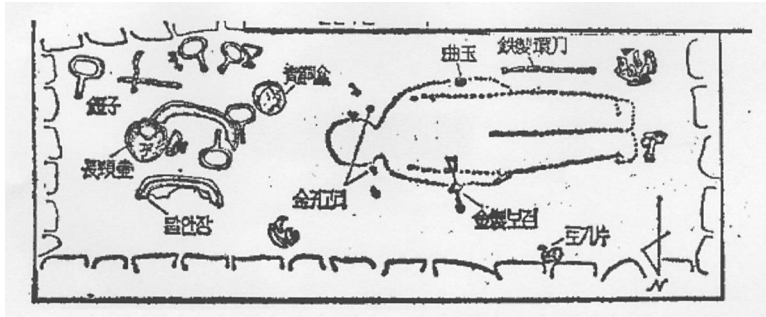
1973년 발굴 당시 발표된 도면을 참고하면 시신 머리 위에는 여러 벌의 등자와 안교, 청동합 등이 놓여 있고 발밑과 양 측면에는 토기 편과 등자들이 산재되어 있었다(도1).<sup>4</sup> 금제감장보검은 피장자의 왼편 허리 쪽에 손잡이 부분이 몸 밖을 향한 채 발견되었다. 이 보검 이외에도 피장자의 오른손 밑에는 장식대도 한 자루가 지면에서 90도의 각도로 발견되었다.<sup>5</sup>

<sup>2</sup> S. T. Baxter, "On Some Lombardic Gold Ornaments Found at Chiusi," *Archaeological Journal* 33 (1876), pp. 103-110; 穴澤和光・馬目順一, 「慶州鷄林路14號墳出土の嵌玉金製短劍をめぐる諸問題」, 『古文化談叢』7(九州古文化研究會, 1980), pp. 253-261.

<sup>3</sup> 이 부분을 중국에서는 '劍耳', '玉耳'라고 부르며 일본에서는 '足金物', '族金具'라고 한다. Howard Hansford, *Glossary of Chinese Art and Archaeology* (China Society, 1954), p. 26. 이 글에서는 검은 패용하는 기능을 가진 점을 중시하여 패용구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sup>4</sup> 계림로 14호분에 대한 보고서는 출토된 유물의 보존처리 작업과 함께 1999년부터 시작되어 2008년 말에 완간될 예정이다.

<sup>5</sup> 주의 도면에 의하면 환두대도로 파악되나 현재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 국립경주박물관에 개인적으로 문의한



도1 계림로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출토 상황



도2-1 검집의 밑면, 금제감장보검,  
계림로14호분, 5세기,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도2-2 P자형과D자형의 패용  
구, 금제감장보검,  
계림로14호분, 5세기

도2 금제감장보검, 36cm, 계림로 14 호분, 5세기,  
신라, 국립경주박물관

전체 길이가 36cm의 짧은 단검인 이 금제감장보검은 내부의 칼은 부식되고 없다. 칼집 밑바닥의 형태가 중앙부분이 볼록한 타원형인 것으로 보아 양날을 가진 단검으로 생각된다 (도2, 도2-1). 이 보검장식은 크게 손잡이 부분과 칼집 부분으로 나누어진다. 손잡이 부분은 반원형 장식판이, 칼집 부분은 장방형과 사다리꼴의 장식판으로 연결되어 있다. 검집의 장식판은 금판을 두드려 형태를 잡은 다음 표면을 금선과 금 알갱이를 붙이는 누금세공기법과 붉은

비에 의하면 환두가 아닐 가능성도 있다고 한다.



도3 환두대도를 맨 보병, 안악3호분, 고구려, 357년

홍마노와 성분을 알 수 없는 회청색 보석을 끼워 넣는 감장기법으로 장식되었다<sup>도2-2</sup>. 장방형과 사다리꼴 장식판의 옆에 붙어 있는 P자형과 D자형의 패용금구에서도 같은 기법으로 구사된 금세공법이 확인된다.

누금세공과 홍마노 등이 감장된 장식기법도 새롭지만, 특히 이 장식보검에서 주목하는 것은 기존의 도검에서 볼 수 없는 2개의 패용구를 부착한 칼의 형식이다. 검집의 패용구는 칼의 기능뿐 아니라 칼이 사용되는 전투 환경과 연관되어 중요하다. 이에 지면에서 거의 수평의 상태로 패용되는 장식보검은 삼국시대의 일반적인 도검인 환두대도의 패용법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삼국시대 무덤에 부장되는 모든 검이 생시에 사용되던 것이 아닌 것도 있어 공격용 무기로 사용된 도검류의 패용 사실에 대한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sup>6</sup> 이에 따라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삼

국시대 도검의 일반적인 패용 상황을 유추하겠다.

고구려 무덤벽화에서 환두대도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안악 3호분이다. 357년 명문이 있는 안악 3호분의 경우 전실 입구의 무인이나 장하독은 검을 잡고 서 있고, 대행렬도에서 방패로 무장한 4명의 환두병들은 고리는 방향에 가까운 환두대도를 어깨에 메고 있다(도3).<sup>7</sup> 4세기 말 5세기 초로 비정되는 감신총에서는 직접 패용하고 있지는 않으나 천이 길게 달린 환두대도의 손잡이를 잡고 이를 지팡이처럼 괴고 있는 무사가 표현되어 있다(도4). 이 장식천은 사용자의 신분과 위세를 나타내기 위한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 칼을 놓쳤을 때 떨어지지 않도록 손목에 감거나 허리띠에 패용하기 위한 용도로 해석되기도 한다.<sup>8</sup>

5세기 중반의 삼실총 제2실 서벽의 무사는 왼손으로 허리에 찬 환두대도를 잡고 있다.

<sup>6</sup> 이창규, 「석검, 동검, 그리고 철검」, 『한국의 칼 문화』(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7회 추계 학술발표회, 2002, 10), pp. 7-30; 龜滋奉, 『三國時代 環頭大刀 研究』(영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pp. 128-139.

<sup>7</sup> 余昊奎, 「高句麗 中期의 武器體系와 兵種構成」, 『韓國 軍事史 研究』vol. 2(1999), pp. 26-27.

<sup>8</sup> 金性泰, 「고구려무기(3)」, 『文化財』 28호(문화재관리국, 1995), pp. 2-3.

平壤兵器廠에서 출토된 삼엽문환두대도에서는 凸形金具이 부착된 것이 확인되어 유일하게 패용 사실이 확인되었다.<sup>9</sup> 이를 종합하여 보면 5세기 초·중반까지 공격용 무기로 쓰인 환두대도는 어떠한 방식이든 신체와 연결하여 사용하였을 가능성이 높으나 허리띠와 연결하여 패용하는 방식은 확립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도검의 패용 상황에서 계림로 14호분의 금제감장보검은 패용구 중 가장 발전한 단계인 2개의 패용구, 즉 雙角金具를 통해 피장자의 허리띠와 연결하여 착용되고 있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도검의 새로운 착용법이 어디에서 유래하였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 2. P자형와D자형의 佩用金具의 등장과 분포지역

도검은 패용금구가 없으면 허리띠에 꽂아 쓰거나 검 손잡이나 끝 부분에 끈을 감아 허리띠에 연결하여 사용한다. 이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칼집에 패용구를 달아 허리띠에 매는 방법이다. 도검의 패용구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칼을 뽑아 쓰는 기마민족에 의해 발명된 것으로 알려진다.<sup>10</sup> 우랄산맥 남부에 거주하던 기원전 7세기의 사르마티아(Sarmatian)에 의해 목제 검집에 일자형의 패용구를 단 것이 그 시초였다.<sup>11</sup> 이 방법이 확산된 것은 동과 서로 확산된 것은 중국 서북부에 위치한 월지(Yüeh-chih, 月氏)의 활약에 의해서다. 즉 흉노의 압박에 의해 인도 서북부로 이주한 월지에 의해 쿠산에 전해졌고, 이 방법은 다시 쿠산을 매개로 하여 파르티아(Partia), 사산조 이란(Sasanian Iran, 224-651)으로 이어지게 되었다(도5). 중국의 경우 장방형 옥제 패용구인 玉璋가 붙은 玉具劍이 월지의 검에 유래한 것인데 낙랑의 평양 석



도4 무사, 감신총, 고구려, 4세기 후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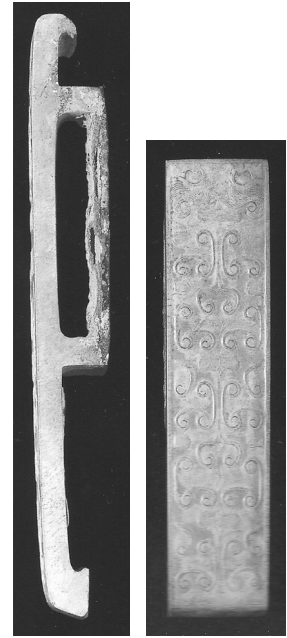
<sup>9</sup> 스에나가 마사오(末永雅雄), 『増補日本上代の武器』(東京: 木耳社, 1981), pp. 278-283.

<sup>10</sup> 갈기가 여러 매듭으로 묶인 말을 탄 기마민족만이 패용구가 달린 검을 착용한 것을 주목하였다. 이러한 갈기 손질법은 사르마티아인들의 풍습인 것을 밝혀 이들에 의해 시작한 것을 알아내었다. Otto Maenchen-Helfen, "Crenelated Mane and Scabbard-Slide," *Central Asiatic Journal*, III/2 (The Hague, July 1957), pp. 85-138.

<sup>11</sup> William Trousdale, *The Long Sword And Scabbard Slide in China* (Washington: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75), p. 39.



도5 검을 맨 무사, 간다라, 인도, 캐나다로얄 온타리오 박물관



도6 옥위, 석암리9호, 1세기, 낙랑,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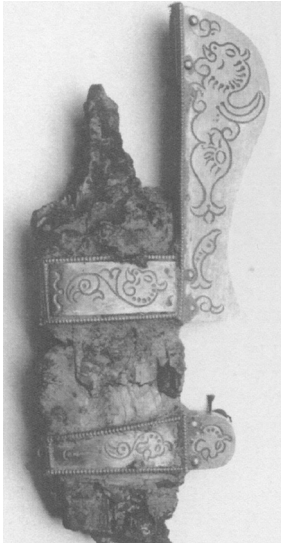
암리 9호묘, 219호묘 등에서 확인된다(도6).<sup>12</sup> 월지에 의해 동서로 확산된 한 개의 패용구로 칼을 매는 방식은 패용구가 수직으로 위치함에 따라 지면에서 90도의 각도로 매달리게 된다. 이 방식에서는 칼집을 한 손으로 고정시키면서 칼을 뽑게 되어 한 손만이 자유롭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계림로 14호분의 금제감장보검과 같은 2개의 패용구가 부착된 도검이다. 이와 같은 형식의 칼은 검집의 시작과 중간부분에 부착된 패용구를 통해 지면에서 약 30도 정도의 각도로 허리띠에 매달게 된다. 이 경우에는 양손을 다 쓸 수 있어 어느 방향에서도 가상의 적을 막을 수 있다.

2개의 패용구를 가진 칼은 서양의 학계에서는 그간 막연히 훈(Hun)이나 아바르(Avar)의 칼에서 기원한 것으로 간주하였다.<sup>13</sup> 이는 1897년에 발굴된 이탈리아 북부에 위치한 랑고바르트(Langobard) F호묘에서 발견된 검집이 랑고바르트인이 아바르로부터 탈취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비롯된 것이다(도7).<sup>14</sup> 7세기로 편년되는 이 검에는 음각선으로 서수와 물고기

<sup>12</sup> William Trousdaem, 위의 책, p. 67; 孫机, 「玉具劍與漢式佩劍法」, 『中國聖火—中國古文物與東西文化交流中的若干問題』(北京: 遼寧教育出版社, 1996), pp. 15-43.

<sup>13</sup> Roman Ghirshman "Notes Iraniennes XIII: Trois Epeés Sassanides," *Artibus Asiae* 26 (1963), p. 305.

<sup>14</sup> S. T. Baxter, 위의 글, p. 110.



도7 P자형과D자형의 패용구,  
아마르 랑고바르드  
(Langobard) F호묘,  
7세기,  
메트로폴리탄 박물관  
도8 도검을 패용한 사푸르상,  
탁-이-부스탄,  
사산조 이란, 6세기 중반

무늬가 시문된 P자와 D자형의 패용구가 부착되었다. 초기 연구자들은 이러한 유형의 도검은 유럽으로 진출하여 이탈리아까지 진격하다 사망한 훈족의 아틸라(Attila, 454년 사망)왕에 의해 전파된 것으로 이해했다.<sup>15</sup> 두 개의 패용구는 비잔틴(Byzantine) 도검에서는 찾을 수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유럽의 침략자인 훈족의 도검으로 비정하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사산조 이란의 검의 전개과정을 통해 두 개의 패용구가 달린 도검의 발생지를 밝힌 연구 결과가 주목된다.<sup>16</sup> 이 연구는 중국, 중앙아시아, 로마와의 동서 교섭의 양상에 따라 무기의 체계가 바뀐다는 관점에 따라 사산조 이란 검의 전개과정을 면밀하게 분석하였다. 그리고 6세기 마에부조에서 2개의 패용구를 부착한 검의 등장을 확인하여 그 변화 원인을 조명하였다.

사산조 이란은 파르티아가 쿠산으로부터 계승된 하나의 패용구를 통해 허리띠와 연결하는 방식을 5세기까지 고수하였다. 이러한 방식에서 변화를 보이는 것은 탁-이-부스탄(Taq-i-Bustan) 마에부조에 새겨진 사푸르(Shapur) 3세의 사슴 사냥 장면이다(도8). 사푸르 3세는 2줄의 끈이 아래로 드리워진 허리띠를 패용한 뒤 이 끈을 통해 두 개의 P형 돌기가 부

<sup>15</sup> J. Otto Maenchen-Helfen, *The World of the Huns: Studies in Their History and Cultur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3), p. 305.

<sup>16</sup> Kate Masia, "The Evolution of Swords and Daggers in the Sasanian Empire," *Iranica Antiqua*, Vol. 35 (2000), pp. 185-289.

착된 장검을 착용하였다. 이 마에부조를 통해 두 개의 패용구를 가진 도검과 두 줄의 끈이 부착된 허리띠는 한 세트임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지적과 같이 P형의 돌기는 허리띠와 연결하는 기능을 하는 부속임이 확실히 밝혀진 셈이다.<sup>17</sup>

이 부조가 호스로(Khusro) 2세 치세 기간인 6세기 중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는 의견을 참고한다면 적어도 사산조 이란은 6세기 전반 이전에 2개의 패용구를 이용하여 검을 지면에서 수평에 가깝게 패용하는 방식으로 변화한 것으로 파악된다.<sup>18</sup> 2개의 패용구가 부착된 검은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을 비롯한 여러 박물관에서 10여 점이 소장되어 있는데, 6세기에서 7세기 사이로 편년된다.<sup>19</sup>

사산조 이란에서 두 개의 패용구가 달린 검을 사용하기 시작한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가 궁금해진다.<sup>20</sup> 그간 도검 연구자들은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못했지만 기마민족인 에프탈(Hephthalite, 嚙噠)을 그 발생지로 추정하는 바가 있다.<sup>21</sup> 사산조 이란 도검의 전개과정을 고찰한 연구에서도 사산조 이란에는 5세기 중반 에프탈과의 전쟁 이후에서야 두 검의 패용구가 달린 검이 등장하는 점을 주목하여 에프탈과의 만남을 새로운 검을 수용한 계기로 판단하였다.<sup>22</sup>

이를 참고한다면 2개의 패용구가 부착된 검이 사산조 이란이 사용하게 된 것은 에프탈과의 접촉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에프탈이라는 민족의 기원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 중에 있지만 이란어를 사용하는 민족이라는 설이 참고가 된다.<sup>23</sup> 에프탈과 사산조 이란은 적대 관

<sup>17</sup> Helmut Nickel, "About the Sword of the Huns and the "Ürepos" of the Steppes," *Metropolitan Museum Journal*, vol. 7 (1973), p. 131.

<sup>18</sup> 타키부스탄 마에부조의 연대에 대한 서로 다른 의견들은 Carl D. Sheppard, "A Note on the Date of Taq-i-Bustan and Its Relevance to Early Christian Art in the Near East," *Gesta*, vol. 20, No. 1, Essays in Honor of Harry Bober (1981), pp. 9-13에 정리되어 있다. 6세기 중반으로 보는 의견은 Elsie Holmes Peck, *The Representation of Costumes in the Reliefs of Taq-i-Bustan*, *Artibus Asiae*, vol. 31, No. 2/3 (1969), p. 122; Kate Masia, 위의 글, pp. 122-123. 7세기 초반의 호스로 2세로 보는 의견은 G. Herzman, *Iran in the Ancient East* (London: Oxford, 1941), pp. 329-331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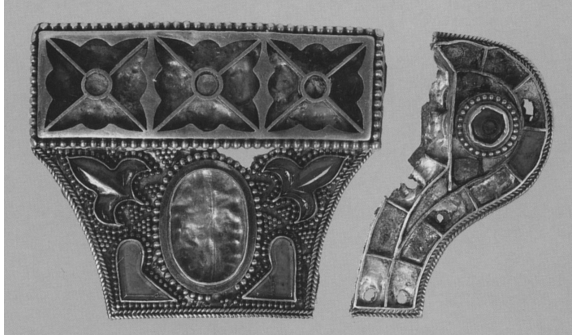
<sup>19</sup> Roman Ghirshman, 위의 글, p. 295.

<sup>20</sup> Otto Maenchen-Helfen, 위의 글, p. 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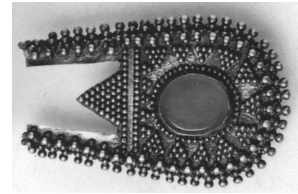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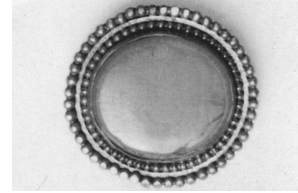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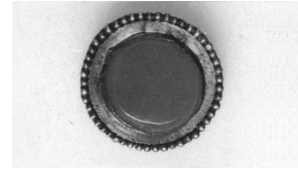
<sup>21</sup> William Trousdale, 위의 책, p. 94; C. Bálint, "Vestiges archéologiques de l'époque tardive des sassanides et leurs relations avec les peuples des steppes," *Acta Archaeologica Academiae Scientiarum Hungaricae*, XXX (Budapest, 1978), pp. 210-212.

<sup>22</sup> Kate Masia, 위의 글, p. 216.

<sup>23</sup> B. A. Litvinsky, "The Hephthalite,"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III A, D. 250 to 750, ed. B. A. Litvinsky (Paris: Unesco Publishing, 1996), p. 142.



도9 금계보검장식,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에프탈, 5세기, 러시아 이조프 박물관



도9-1 홍마노, 금계보검장식,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에프탈, 5세기, 러시아 이조프 박물관

계였다. 에프탈은 힌두쿠시의 양쪽을 점령한 뒤 박트리아로 진격하는 과정에서 사산조 이란과 전쟁에 돌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에프탈은 페로즈(Peroz, r. 457/459-84)왕을 생포하는 전과를 올렸고 그를 풀어주는 대가로 469년부터 545년까지 이란으로부터 막대한 조공을 받았다. 이후 에프탈은 소그드(Sogdiana, 粟特)인들이 좌우하던 박트리아와 북서부 인도의 상권을 주도하게 되었고, 사산조 이란으로부터 받은 조공물을 가지고 중앙아시아와 중국과의 교역에서 중심세력이 되었다.<sup>24</sup> 사산조 이란이 조공 방식으로 평화를 유지하려 했던 에프탈은 5세기경 투르키스탄과 소그드, 박트리아를 차례로 점령하여 중앙아시아의 새로운 패자로 등장하였다. 479년과 509년 사이에는 투르판(Turfan)까지 확보하였고 522년에는 연연(蠕蠕)까지 복속시켰다.<sup>25</sup>

에프탈의 5-6세기의 정치적 판도를 참고하자면 1929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의 보로보에 호수 근처에서 우연히 발견된 금계보검장식은 바로 에프탈이 이 지역을 지배하던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검집 장식 일부만이 남아 있는데, 이 편들을 복원하면 계림로

<sup>24</sup> 이 시기에 소그드인들은 박트리아지역에서 에프탈인들로 인해 활동하지 못했다. Étienne de la Vaissière, Translated by James Ward, *Sogdian Traders* (Brill; Leiden • Boston, 2005), pp. 227-234.  
<sup>25</sup> A. H. Dani and B. A. Litvinsky, "The Kushano-Sasanian Kingdom,"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n III A. D. 250 to 750, ed. B. A. Litvinsky (Paris: Unesco Publishing, 1996), pp. 147-148.

의 장식보검과 같이 골무 형태의 손잡이와 아래가 넓어지는 사다리형의 검집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도9). 그리고 표면에는 누금기법과 감장기법으로 마무리되어 있다. 특히 계림로 14호분의 금제감장보검과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표면장식에 쓰인 마노(Agate)의 일종인 홍마노의 세공 방법이다(도9-1). 홍마노는 현재 독일·체코·인도·브라질 등지에서 산출되고 있다.<sup>26</sup> 계림로 14호분과 카자흐스탄의 보검에서 감장기법에 모두 사용된 홍마노는 경도가 낮은 불투명 또는 반투명한 보석에 응용되는 방법인 카보송(Cabochon)기법으로 연마되었다. 카보송기법은 타원체에 가까운 모양으로 둥글게 성형하거나 단면을 편평하게 깎은 보석을 감장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본래 그리스 로마의 고전 금공세공에서 유래한 것이다. 계림로와 보로보에 두 보검 모두 홍마노 등의 유색 보석이 감장된 다음 테두리가 누금세공기법으로 장식된 공통점이 있다.

기마민족의 금공품에 서방 고전의 금공기법에 적용되는 것은 계림로 14호분과 보로보에 보검의 제작지와 관련하여 중요한 문제를 시사한다. 이와 관련하여 서방금공과 북방유목민들의 금공기술이 융합된 양상을 보이는 우즈베키스탄의 달베르진-테페(Dalversin-Tepe)의 13호 주거지, 다치(Dachi) 1호분 등에서 출토된 1세기와 4세기 사이의 사르마티아(Sarmatian) 금공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sup>27</sup> 사르마티아인들은 불을 숭상한 이란계 기마민족으로 기원전 5세기경에 중앙아시아에 진출하였으며, 1986년부터 발굴되기 시작한 우랄산 밑의 일렉(Ilek)강 근처에 위치한 필립포프카(Filippovka) 무덤이 중앙아시아에 터를 마련한 초기 사르마티아 유적이다.<sup>28</sup>

사르마티아 수장의 묘로 알려진 1세기 후반의 다치(Dachi) 1호묘에서는 목걸이 펜던트를 비롯하여 마구의 재갈, 단검 등에서 유색 보석의 감장과 누금세공으로 장식된 금공품들이 출토되었다.<sup>29</sup> 이 중 재갈의 경판에 쓰인 장식판에는 홍마노를 편평하게 혹은 둥글게 변

<sup>26</sup> Robert Theunissen, Peter Grave, Grahame Bailey, "Doubts on Diffusion: Challenging the Assumed Indian Origin of Iron Age Agate and Carnelian Beads in Southeast Asia," *World Archaeology*, vol. 32, No. 1, Archaeology in Southeast Asia (Jun, 2000), pp. 84-105.

<sup>27</sup> Mikhail Treister "Eastern Jewellery in Sarmatian Burials and Eastern Elements in the Jewellery of North Pontic Area in the First Century," *Iranica Antiqua*, 39 (2004), pp. 297-321

<sup>28</sup> Gemot Windfuhr, "The Iranian and the Sarmatians: A Note on Terminology," *The Golden Deer of Eurasia Scythian and Sarmatian Treasures from the Russian Steppes*,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New York: The Metropolitan Museum of Art, Yale University Press, 2000), pp. 19-20; 이송란 「오르도스 새머리 장식 사슴뿔(Bird-Headed Antler Tine) 모티프의 계보와 동점-평양 석암리 219호분·은케타출마노감장피수문행업의 제작지 문제」, 『오르도스 청동기 문화와 한국의 청동기 문화』(민족문화 원형 발굴과 정체성 정립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2007. 5), pp. 309-311.



도10 개갈, 다치1호묘, 1세기 후반, 러시아 이조프 박물관



도11 금제감장단검, 다치1호묘, 1세기 후반, 러시아이조프 박물관

을 연마한 다음 감장하고 그 테두리를 누금기법으로 장식된 예가 확인된다(도10).

또한 이 무덤에서는 터키석과 홍마노 등이 감장된 장식보검이 동반되었는데, 기원전 1세기에서 기원후 1세기로 편년되는 아프가니스탄 툴라 테페(Tillya-tepe) 4호묘에서도 같은 형식의 검이 발견된 바 있다(도11).<sup>30</sup> 이 검의 양 측면에는 2개의 돌기가 달려 있는데, 이 4개의 돌기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줄을 매어 허벅지에 고정시켜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도12).<sup>31</sup> 툴라 테페의 4호묘에서도 피장자의 허리 아래 부분에서 발견되었다.

이와 같이 다치 1호묘와 툴라 테페 4호에서 동형의 검이 출토되는 점으로 인해 기마민족인 사르마티아의 금공예 보이는 헬레니즘의 영향은 힌두쿠시의 박트리아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방에서 파생되고 있는 것이 밝혀지게 되었다.<sup>32</sup> 박트리아



도12 금제보장단검을 착용한 모습, 툴라 테페 4호, 1세기, 쿠산

<sup>29</sup> 古代オリエント博物館, 『南ロシア騎馬民族の遺寶展』(1991), p. 106.

<sup>30</sup> Victor Sarianidi, *The Golden Hoard of Bactria. From the Tillya-tepe Excavations in Northern Afghanistan*, (New York: H.N. Abrams, Leningrad: Aurora Art Publishers, 1985), p. 246.

<sup>31</sup> Kate Masia, 위의 글, p. 72.

<sup>32</sup> Mikhail Treister, 위의 글, p. 312.

중심으로 발전한 서방계의 금공기법과 북방 유목민의 취향이 복합된 사르마티아의 금세공 품은 이 지역을 이어 받은 에프탈에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이해된다. 특히 유색 보석을 감장하는 감장기법과 주변을 누금알로 배열하는 금공세공은 박트리아를 중심으로 발전하였던 금세공기술이라는 점, 홍마노가 생산되는 지역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계림로 14호분과 보로보에 보검의 제작지는 박트리아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아프카니스탄 북서부의 산악지대와 타지키스탄 일부를 포괄하는 바-디-안(Ba-Di-Yan 지금의 Badakhshan)이 에프탈의 중심권역으로 추정되고 있는 점도 참고가 된다.<sup>33</sup>

2개의 패용구가 부착된 도검의 확산 양상은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Samarkand) 북부 교외에 있는 아프라시아브(Afrasiab) 벽화에서 찾을 수 있다.<sup>34</sup> 이 벽화에는 에프탈인뿐 아니라 소그드, 돌궐, 고구려 사신이 두 개의 패용구가 부착된 검을 착용하고 있다. 1965년 도로공사 중 우연히 발견된 이 벽화에는 사마르칸트의 왕이 각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예빈도가 확인되었다. 발굴 조사자인 알바움(L. Albaum)은 아랍의 침공에 의해 이 도성이 파괴된 것으로 보고 8세기 초반에 조성된 것으로 보았다. 그의 편년에 따라 예빈도에 그려진 조우관을 쓴 우리나라 사신을 고구려 또는 통일신라로 보는 의견들이 대두되었다.<sup>35</sup> 이후 1990년과 1991년에 걸쳐 프랑스와 우즈베키스탄 학자 등의 연합 발굴단에 의해 벽화의 주인공인 사마르칸트의 왕 바르흐만의 주화가 발견되고, 아랍 침공 시에 도성이 이미 폐쇄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바르흐만의 재위연대인 660년 혹은 670년을 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모아졌다.<sup>36</sup> 이에 따라 조우관을 쓴 사신의 국적은 고구려로 귀결되었다.

7세기 후반이면 에프탈은 돌궐에 의해 사마르칸트에서 축출된 상태이지만, 이 벽화에서 에프탈인을 확인할 수 있다. 박트리아어와 소그드어로 구성된 16행의 명문에 등장하는 차가니안(Chaganian)의 사절이 에프탈 출신이기 때문이다(도 13).<sup>37</sup> 에프탈의 연맹국이었던 차가

33 Henry Field, Eugene Prostov, "Archaeology in the Soviet Union," *American Anthropologist*, vol. 39, No. 3, Part 1 (1937), pp. 457-490.

34 이프람시아브 궁전 벽화의 연구 성과는 윤용구, 「소그드벽화, 호레즘성곽, 돈황문서에 보이는 고구려 자료」, 『한국고대사학회 제5회 정기발표회 발표요지』(2005. 6. 11), 주2 참조.

35 金元龍,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宮殿壁畫의 使節圖」, 『考古美術』 129・130(1976), pp. 162-167; 박진욱, 「쓰런 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궁전지 벽화의 고구려 사절도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1988. 3), pp. 11-16; 文明大, 「실크로드상의 新羅使節像 考察」, 『李載堉博士還曆紀念 韓國史學論叢』(한울, 1990), pp. 148-167; 金理那, 「唐美術에 보이는 鳥羽冠飾의 高句麗人」, 『李基百先生古稀紀念 韓國史學論叢』(上) (一潮閣 1994), pp. 503-524; 權寧弼, 『실크로드 미술』(悅話堂, 1997), pp. 257-258; 노태돈, 『에빈도에 보인 고구려당 이현묘 예빈도의 조우관을 쓴 사절에 대하여』(서울대학교출판부, 2003), pp. 33-57.

36 윤용구, 앞의 글참고.



도13 차가니안 사절, 아프라시아브, 650년 전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역사박물관

니안의 왕도 에프탈 출신이었다. 명문 중 1-4행에는 “왕 바르흐만 우니슈가 그 사절에게 가까이 오라고 하니 다가 가서 입을 열었다. 저는 차가니안의 官房長 부카르 자테입니다. 차가니안의 왕 토란타수로부터 여기에 온 것이지요”라고 적힌 내용이 바로 이들과 관련된 기록이다.<sup>38</sup> 세 명의 인물 중 중앙에 있는 붉은 얼굴을 한 사절이 바로 에프탈인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는 비잔틴이나 인도, 페르시아의 사료에 의해 에프탈인은 얼굴이 붉다는 기록에 근거에 의한 것이다.<sup>39</sup> 이 차가니안의 사절들은 2줄의 끈에 의해 P형 패용구가 부착된 단검을 패용하고 있다(도14). 이 단검은 폭이 좁고 검집 아래 부분이 방형으로 마무리된 형태이다.

차가니안의 사절 이외에도 에프탈의 지배를 받았던 소그드, 돌궐, 고구려인들도 2개의 패용구가 부착된 단검이나 장검을 패용하고 있다(도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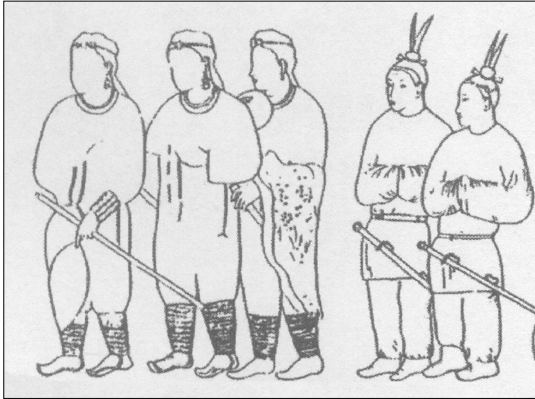


도14 단검, 차가니안 사절,  
아프라시아브, 650년 전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역사박물관

<sup>37</sup> B. A. Litvinsky, “The Hephthalite,” *History of Civilizations of Central Asia* Volume III A, D. 250 to 750, ed. B. A. Litvinsky (Paris: Unesco Publishing, 1996), pp. 136-137.

<sup>38</sup> 명문의 해석은 鄭守一, 「高句麗와 西域關係 考察」, 『高句麗研究』 14호(2002), pp. 222-223 참고.

<sup>39</sup> B. A. Litvinsky, 앞의 글, pp. 136-137.



도15 고구려사신, 아프라시아브, 650년 전후,  
우즈베키스탄 사마르칸트 역사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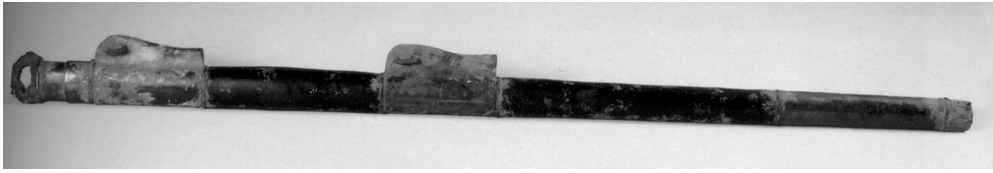
도16 은제 접시, 7세기, 소그드, 러시아에르미타주박물관

이 벽화를 통해 7세기 후반에는 2개의 패용구가 달린 검이 소그드와 돌궐, 고구려로도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는데, 흥미로운 것은 각기 다른 패용 방식이다. 고구려의 경우에는 M자형 혹은 산형 패용구가 붙은 환두대도를 왼편 허리에 비스듬히 패용하고 있는 반면 길게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는 돌궐인과 소그드인들은 등 쪽에 패용하고 있다. 한편 현재 러시아의 에르미타주박물관에 소장된 전투장면이 묘사된 은제접시에 등장한 소그드무사는 허리의 측면에 단검을 패용하고 있다(도16). 이로 보면 소그드의 경우에는 단검은 허리 측면에, 장검은 등 쪽으로 비스듬히 패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그드는 서방식의 2개의 패용구가 달린 검을 중국식으로 변용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였다. 중국 위그르자치구 고원박물관에 소장된 철검은 두 개의 P자형 패용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칼 머리가 중국식인 환두대도이다(도17). 이 철검은 北周 天和 4년(569)년에 사망한 北周大將軍 李賢과 547년에 사망한 그의 부인 宇文의 합장묘에서 출토된 것으로 은호를 비롯하여 琉璃碗 금반지 등 서방계 공예품들이 다수 부장된 것으로 보아 묘주는 서방 공예품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sup>40</sup>

이와 같이 에프탈 양식의 도검이 동점되는 데 중계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파악되는 소그

<sup>40</sup> 寧夏回族自治區博物館・寧夏固原博物館, 「寧夏固原北周李賢夫婦墓發掘簡報」, 『文物』第11期(1985), pp. 1-3.



도 17 철검, 복제, 569년, 중국 고원박물관

드와의 연결고리를 아프리카브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도에서 찾을 수 있어 흥미롭다. 고구려 사신 두 명은 모두 2개의 패용구가 부착된 검을 착용하고 있는 점이 파악되기 때문이다.<sup>41</sup> 이로 보면 고구려와 소그드와의 관계를 통하여 2개의 패용구를 가진 검이 한반도에 수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고구려와 소그드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문헌으로는 이들의 관계가 파악되기 어려우나 안악 3호분과 장천 1호분에는 소그드 출신 藝人들이 그려져 있다. 이들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배경과 그 의미를 고찰하여 소그드와 고구려의 관계를 규명하기로 한다.

### III. 신라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수용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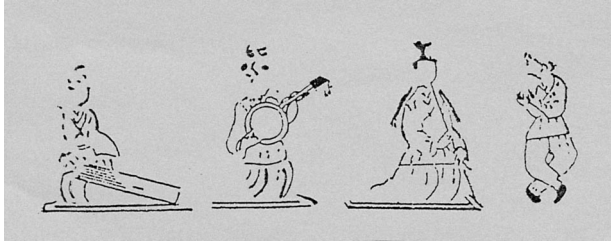
#### 1. 고구려 고분벽화의 소그드인

357년 명문이 있는 안악 3호분의 후실 동벽에는 가야금, 공후, 피리를 연주하는 악사들의 합주를 따라 손뼉을 치며 춤을 추는 남자 무용수가 그려져 있다(도 18). 이 인물은 코가 유달리 높고 X자로 다리를 꼬는 자세를 취하고 있다. 서역인의 탈을 쓰고 춤을 추는 것으로 보는 의견도 있으나<sup>42</sup> X자로 다리를 꼬는 자세는 고구려에서 확인할 수 없어 서역인 무용수로 이해된다.<sup>43</sup> 무용총이나 장천 1호분 등의 무용수들이 팔을 올려서 상체를 중심으로 춤을 추

<sup>41</sup> 아프리카브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신은수를 견제하기 위한 돌궐과의 외교 관계에 따른 사절로 보는 의견도 있다(정수일, 앞의 글, pp. 224-225). 또한 중국으로부터 전해진 도상에 따라 그린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 의견을 따르지는 않지만 혹 그렇다 하더라도 이 도상에는 당시 고구려의 복식과 자물이 반영되어 있는 점이 참고된다.

<sup>42</sup> 역사과학연구소, 『고구려문화사』(논장, 1995), p. 257.

<sup>43</sup> 이해구, 「고구려 계삼호분의 주악도」, 『한국고대 음악의 전개 양상』, p. 429; 이태호, 『고구려고분벽화해설』(풀빛, 1995), p. 46.



도18 무용수, 안악3호분, 고구려



도19 무용수, 연희장면, 안가묘 북계, 5세기

고 동작과 비교하면 상당히 이색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

X로 다리는 꼬는 자세는 몸을 돌리기 위한 동작으로 이해되는데, 이는 소그드인들의 춤인 胡旋舞를 상기시킨다. 北齊安家墓를 비롯하여 隋代의 太原盧弘墓 등 묘주가 소그드계인 무덤에서는 손을 위로 치켜들고 손뼉을 치면서 한 발을 들어 몸을 틀어 도는 동작을 하는 남성 무용수들과 그 자세가 비교된다(도19). 호선무는 본래 조로아스터교 의례 시 양탄자 위에서 비파, 공후, 피리, 완, 법라, 요고 등의 악기 반주로 추는 춤인데, 가장 기본적인 반주는 공후와 피리라고 한다.<sup>44</sup> 안악 3호분에서는 양탄자는 없으나 반주 악기로 꼭 등장하는 악기인 공후와 피리가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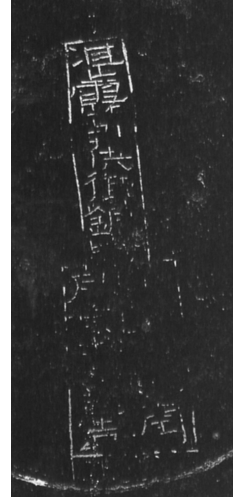
그렇다면 4세기에 소그드무용수가 어떤 경로를 통해 고구려까지 올 수 있는지가 궁금하다. 중앙아시아의 소그드와 고구려 평양지역과 연결이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것은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하는 완의 형태에 손잡이가 달린 銅製桴이다. 국자로 쓰인 이 동괴의 바닥에는 “漢靈帝 熹平 御桴 閏月涼部造”라는 두 줄의 명문이 있다(도20, 20-1).<sup>45</sup> 이 명문으로 보아 이 국자는 전량(314-376)의 부속 건물인 담로현에서 바친 것임을 알 수 있다. 한편 문서나 물품을 봉인하는 봉니를 넣는 용도로 사용된 동계금상감니통에도 전량의 왕궁인 靈華禁闈에서 사용되었다는 명문이 확인되었다. 또한 명문에 새겨진 동진의 연호인 升平 13년에 따라 369년에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때는 9대왕 張天錫에 의해 지배되던 시기로 이로부터 9년 후에 前秦의 부건에 의해 전량은 멸망하게 된다.<sup>46</sup> 평안남도 중화군에서 출토된 것으로 전해지는 동계괴는 이 동계니통과

<sup>44</sup> 姜伯勤, 『中國舞蹈藝術史研究』(北京: 三聯書店, 2004), pp. 307-308.

<sup>45</sup> 국립문화재연구소, 『일본 도쿄국립박물관 소장 오구라 컬렉션 한국문화재』(2006), pp. 330-331.



도20 동제과, 전량, 4세기, 높이 8.3cm, 동경국립박물관



도20-1 명문, 동제과, 전량, 4세기, 높이 7.3cm, 동경국립박물관



도21-1 명문, 동제니통, 전량, 369년, 서안박물관

도21 동제니통, 전량, 369년, 서안박물관

비교하여 명문의 서체와 이를 새긴 입사기법이 동일하여 비슷한 시기에 전량의 수도인 감숙성의 무위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도21, 21-1).<sup>47</sup> 이 동제과를 통하여 4세기 고구려 평양지역에서는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감숙지역과도 교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sup>46</sup> 九州國立博物館, 『美の十字路』(2006), p. 69.

<sup>47</sup> 高浜秀, 『資料紹介 金銅象嵌』 『MUSEUM』 第372號(東京國立博物館, 1982, 3), pp. 15-20.



도22 연회와수렵,  
장천1호분, 고구려,  
5세기중반

감숙은 중국에서 소그드인들의 취락지가 이른 시기부터 조성되었던 지역이다.<sup>48</sup> 오렐 스타인(Aurel Stein)이 발견한 5장의 편지 중 2번 편지는 바로 감숙성 난주에 거주하는 나나이 반딕(Nanai Vandak)이라는 소그드인이 낙양에서 벌어진 사건을 본국인 사마르칸트에 적어 보낸 내용이다. 이 편지가 311년에서 313년으로 편년된다는 의견을 참고하면 4세기 전반에는 이미 감숙성은 사마르칸트에 편지를 보낼 수 있을 정도로 취락지가 구축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sup>49</sup>

남북조시기에 이르면 비교적 이른 시기에 구축된 감숙성의 주천, 무위, 장액 등 뿐 아니라 산서성의 태원, 대동, 하남성의 낙양과 정주, 북경, 산동에 이르기까지 교통의 거점지에는 소그드인들의 취락지가 분포한 것으로 알려진다.<sup>50</sup> 중국에 거주하는 소그드인들은 隋商의 수령이라는 의미의 薩寶를 중심으로 수십 명에서 수백 명에 이르는 촌락을 이루고 살았다.<sup>5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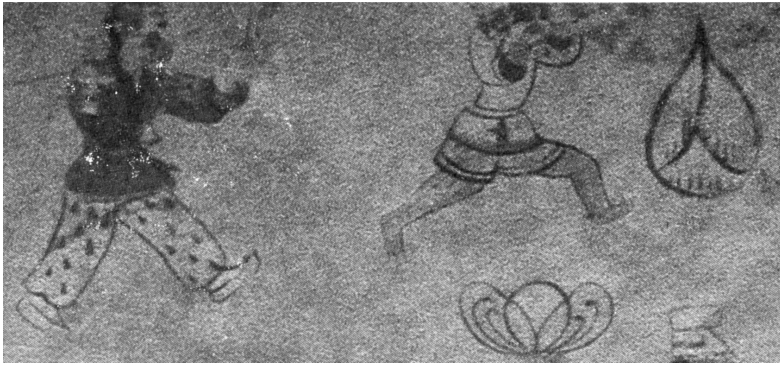
소그드인들과 고구려와의 교류는 5세기에든 계속된 것으로 파악된다. 5세기 중반으로 편년되는 장천 1호분 전실 북벽에는 수목에배도, 혹은 백희도라고 명명되는 큰 나무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연회와 수렵도가 행해지는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도22).<sup>52</sup> 의자에 앉은 묘주

<sup>48</sup> 英新江, 『中古中國與外來文明』(北京: 新華書店, 2001), pp. 65-74.

<sup>49</sup> W. B. Henning, "The Date of the Sogdian Ancient Letters, Bulletin of the School of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Oriental and African Studies*, vol. 12, No. 3/4, (London: University of London, 1948), pp. 609-610; A. L. Juliano & J. A. Lerner, "Monks and Merchants," *Silk Road Treasures from Northwest China* (New York: Harry N. Abrams with The Asia Society, 2001), pp. 47-48.

<sup>50</sup> 榮新江, 「北朝隋唐粟特人之遷徙及其聚落」, 『中古中國與外來文明』(北京: 三聯書店, 1997), pp. 37-110.

<sup>51</sup> 榮新江, 「北朝隋唐粟特聚落內部形態」, 『中古中國與外來文明』(北京: 三聯書店, 1997), pp. 111-115.



도23 대면극,  
장천 1호분,  
고구려,  
5세기 중반

가 좌측 상단에서 큰 나무에 원숭이가 올라가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있고, 그 밑에는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자세의 한 인물이 배치되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여러 연희가 배치되어 있다. 이 중 주목되는 것은 우측 상단에는 가면을 쓰고 가는 한 인물을 채찍을 든 인물이 쫓아가는 두 명의 인물이다(도23). 이들은 복식이나 얼굴 표현으로 보아 서역인으로 추정되는데, 소그드지역에서 유행한 가면극의 일종인 代面劇의 소막차를 연상시킨다. 이 극은 동물이나 귀신 등 다양한 모습의 가면을 쓰고 행인에게 진흙을 뿌리거나 올라가미를 던지는 행위를 하는 것으로 매년 7월 초에 일주일 동안 계속되었다고 한다.<sup>53</sup> 이는 물을 구해 풍년을 기원하고 악귀를 쫓는 의미로 행해졌으며, 사산조 이란에서 있었던 물을 뿌리는 고사에서 유래하였다. 장천 1호분에서는 올라가미 대신에 채찍으로 변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장천 1호묘에서는 이 대면극을 비롯하여 모두 32명의 인물들이 공연을 펼치고 있는데, 이 중 9명이 코가 높은 서역인으로 추정되고 있다.<sup>54</sup>

장천 1호분의 묘주는 금장식이 있는 조우관, 즉 소골관을 쓰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신분이 그렇게 높지 않은 귀족 계층으로 파악되고 있다.<sup>55</sup> 따라서 그가 연회를 개최한 것이 아니라 관람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서역인들이 와서 공연할 정도의 축제라면 왕을 비

<sup>52</sup>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사계절, 2000), pp. 51-52; 田耕旭·장장식,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 놀이문화」, 『고구려연구』17집(고구려연구회, 2003), pp. 150-151.

<sup>53</sup> 전덕재, 「한국고대 서역문화의 수용에 대한 고찰-백희·가무의 수용을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58(2006), pp. 23-24.

<sup>54</sup> 전호태, 「고구려 장천 1호분의 서역계 인물」, 『울산사학』 6집(1993), pp. 29-34.

<sup>55</sup> 권오영, 「유물과 벽화를 통해 본 고구려의 관」, 『고구려에서 찾은 고구려인의 삶과 문화』(고구려연구재단, 2006), pp. 27-28; 이승란, 「백제 무령왕과 왕비 관의 복원시론과 도상」, 『무령왕릉 출토 유물 분석 보고서Ⅱ』(국립공주박물관, 2006), pp. 150-151.



도24 백마, 장천 1호분, 고구려 5세기 중반



도25 말을 모는 서역인, 장천 1호분, 고구려 5세기 중반

롯한 일정 지배 계층이 참여하는 동명으로 이해된다. 연회 장면의 하단에는 수렵 장면이 묘사된 것을 참고하면 수렵 대회, 제천 행사, 계가 회의로 이어지는 국중 대회인 동명일 가능성이 제시되는 것이다.<sup>56</sup>

묘주의 가장 영화로운 순간이 묘사된 장천 1호분의 전실 북벽은 내세로 올라가는 차비도 동시에 표현되었다. 화면 정중앙에 위치가 가장 큰 크기로 그려진 백마는 바로 묘주를 천상으로 이동시켜줄 매개체이다. 그런데 백마의 곱슬거리는 갈기와 큰 키를 보면 고구려 토종말이 아니라 서역마로 생각된다(도24). 이 말 이외에도 오른쪽 상단에는 말을 끌고 가는 두 명의 서역인들이 배치되어 있다(도25). 이는 서역마와 더불어 말을 보살필 서역인들도 함께 고구려에 왔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5세기 중반 고구려에서 중장기병이 확산되면서 무거운 이들을 태우고 달릴 수 있는 양마들이 필요한 것을 참고하면, 서역계 말물이꾼의 존재가 쉽게 이해된다. 이들은 서역마들을 특정한 사료로 먹여서 키우고, 훈련시키고 좋은 종마를 골라 번식시키는 전문인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안악 3호분과 장천 1호분의 소그드계의 예인들이나 말물이꾼을 통하여 4세기 중반에서 5세기 중반에 이르기까지 소그드와 고구려와의 꾸준한 교섭관계를 확인하였다. 아마도 소그드 예인들은 독자적으로 활동한 것이 아니라 일군의 隧商들과 같이 무리를 지어 방문하였을 것이다. 이와 같은 꾸준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 7세기 중엽 고구려는 사마르칸트에 사신을 보낼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이해된다.

<sup>56</sup> 류현희, 『고구려 ‘국중대회’의 구성과 기능』(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pp. 25-26.

## 2. 신라 기마문화와 <금계감장보검>의 사용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계림로 14호분의 묘주는 금계감장보검을 왼쪽 허리에 패용하고 오른손 아래에는 직도로 보이는 대도로 무장하고 있었다. 이 두 자루의 검 이외에 발견된 활과 화살의 무구, 안교와 등자, 행엽 등의 마구, 갑주의 찰감 편들은 개마무사였던 피장자의 생시에 사용하던 무기체계를 반영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개마무사의 존재는 4세기 중반 안악 3호분의 대형렬도에서 처음 확인되고 있다. 묘주로 추정되는 동수가 전연의 왕 모용황의 군정을 총괄하는 司馬를 지낸 것을 감안하면 그는 군사와 무장체계에 박식한 인물로 판단된다.<sup>57</sup> 동수의 배경을 고려하면 전연에서 활동하였던 동수를 통해 기마와 등자로 무장한 개마무사가 고구려에 소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sup>58</sup> 5세기에 이르면 고구려 군대에서 기병과 보병이 1:3의 비율로 여전히 보병이 압도적이지만 전투에서 주된 역할 기병이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흔들리는 말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고도로 훈련된 개마무사는 선두 대열에서 나서서 적진의 보병 대열을 깨 전투의 우위를 확보하기 때문이다.<sup>59</sup> 5세기 고구려가 군사적인 우위를 가지면서 광대한 영토를 확장하였던 것은 아직 고구려와 백제가 중장기병을 보유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sup>60</sup>

5세기 고구려에 병사를 요청하였던 신라가 군사문화에서 고구려에 많은 영향을 받은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산악지대인 고구려와는 달리 논농사지역인 신라에서 개마무사가 전투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는 파악되지는 않았으나 경주 황남동 109호 3·4곽, 황오리 54호 율총, 인왕동 C구 1호분 등 일부 고분에서 찰감이 확인되어 개마무사의 존재를 알 수 있다.<sup>61</sup> 이는 인접한 가야에 비하여 작은 양이나 찰감을 가야에서처럼 위세품으로 취급하지 않은 관념의 차이로 파악되고 있다. 황남대총 남분 등 왕릉급 고분에서 찰감은 보이지 않으나 금동계, 은계 광감이 장신구와 같은 성격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한 예라고 할 수 있다.

개마무사로 구성된 전투 병력은 무기체제와 전술에도 변화를 가져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바로 계림로 14호분의 묘주가 패용하고 있는 2개의 패용구는 신라에 새로이 도입된 개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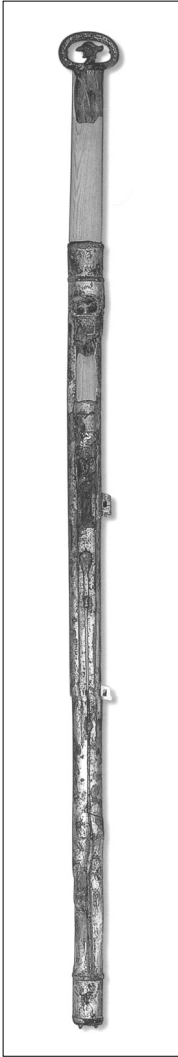
<sup>57</sup> 여호규, 위의 글, pp. 63-64.

<sup>58</sup> 여호규, 위의 글, pp. 56-70.

<sup>59</sup> 徐榮教, 「고구려 벽화에 보이는 고구려의 전술과 무기-기병무장과 그 기능을 중심으로」, 『고구려 연구』 17집(2003), p. 360.

<sup>60</sup> 이인철, 「4-5세기 고구려의 남진경영과 중장기병」, 『군사』 33(1996), p. 31.

<sup>61</sup> 송계현, 「고구려의 신라 구원과 가야와 왜의 무기체제 변화」, 『고구려연구』 21집(2005), p. 400.



도 26 환두대도,  
천마총,  
신라, 5세기

무사의 무기로 이해된다. 계림로의 묘주는 부장품으로 보아 대도와 금  
계감장보검을 비롯하여 화살통과 활, 鐵矛를 사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가장 주된 무기는 달리는 말의 힘을 이용하여 관통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철모로 생각된다. 철모는 이전부터 존재하던 무기이나 삼국이  
기마전에 돌입하면서 살상력이 좀더 확대되는 모신의 폭이 좁고 단면이  
능형이 되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sup>62</sup>

검은 창을 놓쳤을 때 또는 보병들에 의해 밀집되어 공간의 여유가  
없을 때는 쓰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은 좀더 위급한 상황에서  
사용되는 보조 무기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면 쉽게  
검을 뽑을 수 있는 두 개의 패용구가 장착된 검은 개마무사에게는 긴요  
한 무기가 되는 셈이다. 금계감장보검은 내부의 철검은 부식되어 알 수  
없으나 길이가 그리 길지 않은 단검의 형태인 점을 고려하면 베는 기능  
보다는 강한 힘으로 내려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무기로 작용하였을 것  
이다.

현재 계림로 14호분의 금계감장보검과 같은 형태의 검은 보이지 않  
으나 천마총에서 환두에 봉황 머리가 장식된 대도의 검집에 2개의 사각  
형 금동패용구가 달린 것이 확인된다(도 26).<sup>63</sup> 5세기 전반으로 편년되는  
황남대총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쌍각금구가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되는 천  
마총에서 확인되는 점은 5세기 중·후반 사이에 신라에서 검의 착용에  
변화가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로 이 시점이 계림로 금계감장보검의  
수용과 사용 시기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이 5세기 중반까지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허리에 도검을 패용하는 방  
식이 확인되지 않았다.

계림로 14호분의 보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금  
은입사로 장식된 안교와 행엽이 출토되었다. 신라에서 입사기법이 5세  
기 후반에서 등장하고 있는 것은 감안하면 계림로 14호분의 연대는 5세  
기 후반으로 비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하지만 금계보장단검의 연대는 이보다는 다소 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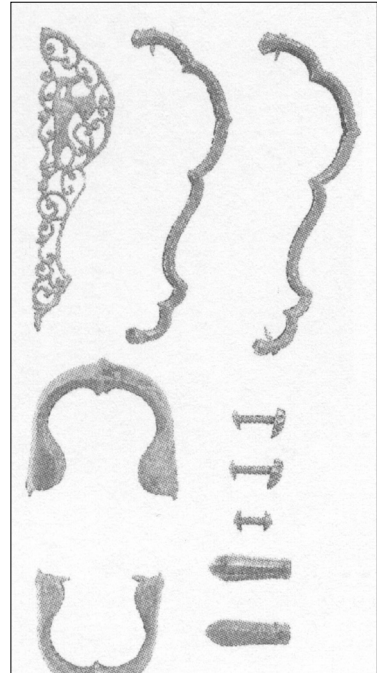
<sup>62</sup> 송계현, 위의 글, p. 406.

<sup>63</sup> 국립경주박물관 『新羅黃金』(2001), p. 222, p. 285.



도27 금제감옥팔찌의 펼친 모습. 황남대총 북분, 신라, 5세기 중반, 자름 9.7cm

서서 수용연대와 부장연대는 다소 차이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표면장식기법과 감장의 재료 면에서 비교되는 황남대총 북분의 금제감옥팔찌가 5세기 초반 혹은 중반으로 편년되기 때문이다. 이 팔찌는 누금 세공기법으로 모두 5개의 방형의 공간을 다음 그 내부에 녹색의 터키석(turquoise), 군청색의 청금석(라피스 라줄라이, Lapis Lazuli) 등을 감장하고 그 외부를 누금으로 장식하였다(도 27). 형태나 표면장식기법 면에서 이질적인 요소가 농후하지만 여러 장의 금판을 덧대어 하나의 팔찌를 만드는 서툰 기법을 보여 외래품을 모방하여 신라에서 만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아프카니스탄, 남러시아, 미얀마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청금석은 신라 5세기 후반의 공예품에는 보이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계림로 14호분 금제감장보검의 수용시기는 5세기 중반 즈음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듯하다.<sup>64</sup> 따라서 2개의 패용구가 달린 검은 5세기 중반에는 수용이 되어 5세기 후반에서는 장검으로도 확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28 패용구, 다카마츠즈카(高松塚), 7세기 중반

고구려 유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7세기 중반의 다카마츠즈카(高松塚)에서는 당초문을 배경으로 한 마리의 서수가 뒤를 보면서 달려가는 장면이 투각기법으로 시문된 P형 패용구가 발견되었다(도 28). 다카마츠즈카 검과 같이 P자형 패용구가 부착된 완형의 예는 일본의

<sup>64</sup> Thomas W. Beale, "Early Trade in Highland Iran: A View from a Source Area," *World Archaeology*, vol. 5, No. 2 (Oct, 1973), p. 137.

쇼소인(正倉院)에 소장된 금은장대도에서 찾을 수 있다.<sup>65</sup> 현재 이 검에는 패용구와 허리띠를 연결하는 흰색 가죽끈까지 남아 있는데, 고구려비단으로 만든 주머니에 이 검이 보관되어 있다. 고구려 유민의 무덤으로 추정되는 다카마츠츠키에서 P형 패용구가 출토되었고 쇼소인 소장의 금은장대도가 고구려산 비단주머니에 보관된 사실로 미루어보아 일본은 고구려를 통해 P형 패용구가 달린 검을 수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 IV. 맺음말

이제까지 계림로 14호분에서 출토된 금제감장보검이 어디에서 제작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배경에 의해 착용한 채 발견되는지를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수입품으로 알려진 이 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와 수용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신라 공예에 반영된 서방계 금공의 한 계보를 파악하는 문제뿐 아니라 신라에 유입된 기마문화와도 연결된 문제이다. 이미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계림로 금제보장단검과 같은 유형의 검들은 기마민족과 관계된 지역에서 출토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 금제감장보검이 실제로 착용되고 있는 점을 주목하여 패용구의 기능을 하는 P자형과 D자형의 장식판이 달린 검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면밀히 고찰하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마민족인 사르마티아인들이 기원전 7세기에 하나의 패용구가 부착된 검집을 발명한 이래, 이 방법은 율지인들을 통해 동서로 확산된 뒤 중국의 한, 인도의 쿠산, 파르티아와 사산조 이란, 유럽의 아바르에 의해 1000여 년이 넘게 이용되어 왔다. 이 방법에서 변화된 모습이 파악되는 것은 6세기로 추정되는 탁-이-부스탄에 새겨진 샤푸르 3세의 장검의 패용 방식이다. 이러한 변화의 요인은 5세기 후반 현재의 아프카니스탄 북부와 우즈베키스탄 남부 등을 포함한 박트리아지역을 놓고 패권다툼을 벌이던 에프탈과의 접촉으로 파악되었다.

당시 에프탈의 정치적 판도에 따라 이들의 검으로 판단되는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보로보에 호수 발견의 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는 박트리아지역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박트리

<sup>65</sup> 大學史料編纂所,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1904), pp. 132-133. 『大日本古文書』4, 『正倉院御物』撰述日平勝實 歲(西曆756年)6月21日付, ……金銅唐大刀一口 刃長二尺八寸五分 鋒者兩刃 偃尾 鮫皮囊把 金銀作山形龍麟 葛形平文 白皮懸(白皮帶執 黑紫綾帶 白地高麗錦袋解紫)

아 중심으로 발전한 서방계의 금공과 연관관계를 보이고 있고 감장의 재료인 홍마노가 이 지역산이기 때문이다. 계림로의 보검의 제작지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에프탈 제작의 두 개의 패용구가 달린 검은 에프탈의 동맹국이었던 소그드와 고구려와 교류에 의해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4세기 중반의 안악 3호분, 5세기 중반의 장천 1호분에 그려진 소그드 출신의 예인들은 상인들의 무리와 같이 움직이던 집단으로 파악되었다. 이와 같은 꾸준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 7세기 중엽 사마르칸트 아프라시아브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절단에서 알 수 있듯이 사신을 보낼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이들 고구려 사신들이 착용하고 있는 M자형 패용구가 달린 장검은 고구려 유민의 무덤인 다카마츠츠크에서 발견된 P자형 쌍각금구로 연결되는 것으로 파악된다.

마지막으로 계림로 14호분에서 묘주가 두 개의 패용구가 달린 검을 착용하고 있는 의미를 묘주의 무장체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5세기 고구려에 원병을 청하였던 신라에서 개마무사의 존재는 4세기 말부터 확인되고 있다. 생시에 개마무사였던 계림로 14호 묘주의 주된 무기는 철모이지만, 허리에 패용된 검은 창을 놓쳤을 때 또는 보병들에 의해 밀집되어 공간의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요긴한 무기로 사용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천마총 환두대도에서 4각형의 쌍각금구가 발견되는 점은 계림로 금제감장단검과 같은 패용 방식이 신라 도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이해된다.

\* 주제어(key words) \_\_\_ 계림로 14호분(Gaerimro no. 14), 검집(Scabbard), 기마민족(Equestrian People), 소그드(Sogdiana), 사르마티아(Sarmatia), 파르티아(Parthia), 월지(Yueh-chih), 사산조 이란(Sasanian Iran), 에프탈(Hephthalite), 틸라 테페(Tilya-tepe), 아프라시아브 벽화(Afrasiab Mural Painting)

금제감장단검, 화살통장식, 장식대도 등의 무구, 금은입사철제안고, 은입사행엽, 등자 등의 기마구 등이 부장된 경주 계림로 14호분은 개마무사의 무덤이다. 이 무덤에서는 감장기법과 누금기법으로 표면이 화려하게 장식된 금제감장단검이 피장자 왼쪽 허리편에서 발견되었는데, 검집 측면에 부착된 P자형과 D자형의 장식판을 통해 허리띠와 연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글에서는 주목하지 않았던 폐용구로 이해되는 P자형과 D자형의 장식판의 발생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여 계림로 금제감장보검의 구체적인 제작지와 수용경로를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 수입품으로 알려진 이 금제감장보검의 구체적인 제작지와 수용경로를 분석하는 것은 신라 공예에 반영된 서방계 금공의 한 계보를 파악하는 문제뿐 아니라 신라에 수용된 기마문화의 성격을 알 수 있는 문제이다. 두 개의 폐용구가 부착된 계림로 금제보장단검과 같은 형식의 검들은 기마민족과 관계된 지역에서만 출토되기 때문이다.

폐용구가 부착된 형식의 검은 처음 기마민족인 사르마티아(Sarmatia)에 의해 기원전 7세기에 발명되었다. 이와 같은 형식의 검은 율지를 통해 동서로 확산된 뒤 중국의 漢 인도의 쿠산(Kushan), 파르티아(Partia)와 사산조 이란(Sasanian Iran), 유럽의 아바르(Avar)에 의해 1000여 년이 넘게 이용되었다. 이와 다른 방식으로 검을 폐용하는 것은 사산조 이란의 6세기로 추정되는 탁-이-부스탄(Taq-i-Bustan)에 새겨진 샤푸르 3세(Shapur III)의 장검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변화는 5세기 후반 무렵, 현재의 아프카니스탄(Afganistan) 북부와 우즈베키스탄(Uzbekistan) 남부 등에 해당하는 박트리아(Bactria) 지역을 놓고 페르시아인 에프탈과의 접촉을 통해 수용한 것이다.

당시 에프탈의 정치적 판도를 참고하면 계림로의 금제감장단검과 같은 형식의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Kazakhstan) 보로보예(Borovoye) 호수에서 발견된 금제감장보검의 제작지를 박트리아로 좁혀 볼 수 있다. 이는 박트리아 중심으로 발전한 서방계의 금공과 연관 관계를 보이고 있고, 감장의 재료인 홍마노가 박트리아산인 점을 참고하여 내린 결론이다.

에프탈에서 시작된 두 개의 폐용구가 달린 검은 소그드(Sogd)와 고구려와 교류에 의해 한반도에 전해진 것으로 이해된다. 이와 관련하여 4세기 중반의 안악 3호분, 5세기 중반의 장천 1호분에 그려진 소그드 출신의 예인들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상인들의 무리와 같이 움직이던 집단으로 생각되어 중앙아시아와 고구려와의 교섭을 반영하는 존재들로 파악하였다. 7세기 중엽 사마르칸트(Samarkand) 아프라시아브(Afrasiab) 벽화에 그려진 고구려 사절단에서 알 수 있듯이, 고구려와 소

그드의 꾸준한 관계가 바탕이 되어 사마르칸트에 직접 사신을 보낼 정도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다. 아프리카이브 벽화에서 보이는 고구려 사신들이 착용하고 있는 M자형 패용구가 달린 장검은 고구려 유민의 무덤인 다카마츠츠키(高松塚)에서 발견된 P자형과 D자형의 패용구가 달린 장식대도와 비슷한 형태로 추정된다.

마지막으로 계림로 14호분에서 묘주가 두 개의 패용구가 달린 검을 착용하고 있는 의미를 묘주의 무장체계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5세기 고구려에 원병을 청하였던 신라에서 개마무사의 존재는 4세기 말부터 확인되고 있다. 생시에 개마무사였던 계림로 14호 묘주가 사용한 주된 무기는 창이지만, 허리에 패용된 단검은 창을 놓쳤을 때 또는 보병들에 의해 밀집되어 창을 쓸 공간의 여유가 없는 급박한 상황에서 사용한 것으로 이해하였다. 그리고 천마총 환두대도에서 확인된 4각형의 쌍각금구는 계림로 금제감장단검과 같이 허리에 패용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신라에 수용된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Abstract**

Gold Dagger with Inset Jewels in (from) Gyerimno Tumulus  
No. 14: Origins and Path of Transmission

**Lee Songran\***

The large array of weaponry and horse trappings yielded from Gyerimno Tumulus No. 14 suggests that this Silla tomb located in Gyeongju belonged to a cavalryman. A gold dagger with inset jewels, arrow-holder ornaments, ornamental swords, a gold and silver wire-inlaid iron saddle, silver wire-inlaid horse strap pendants and stirrups are some of the artifacts harvested from the Silla tomb. The gold dagger with brilliant surface decorations created using inseting and granulation techniques was lying left of the remains of the deceased at waist level. The ornamental plates in the shapes of letters P and D attached to the side of the scabbard appear to have been used to hang the dagger to the waist belt. This paper investigates the possible place of fabrication of this gold dagger and the path through which it reached Silla by retracing the stylistic origins of the two ornamental plates in the shapes of P and D, which have thus far received little academic attention.

Establishing a precise place of origin and path of transmission for this gold dagger, presumed to have been imported from somewhere in Central Asia, can not only cast light on the influence of this region and regions further West on the genealogy of Silla metalwork, but also and more importantly help us pinpoint which of the equestrian civilizations that flourished in this general

---

\* Cultural heritage connoisseur

region principally influenced Silla. Daggers and swords having two ornamental plates on the scabbard like the Gyerimno gold dagger with inset jewels have been found only in regions historically associated with equestrian peoples.

Swords and daggers attached with similar accessories were first produced toward the 7th century BCE by Sarmatians, a horse-riding nomadic people of Central Asian origin. They were later spread to regions east and west by the Yüeh-chih (Yuezhi), another nomadic people of Turkish stock, including the Han Dynasty of China, the Kushan Dynasty of India, Sasanid Iran and Avars in Europe, to remain in use for more than 1,000 years. Meanwhile, examples of swords used for ornamental purposes date as far back as the 6th century CE. The long sword that belonged to Shapur III of Sasanid Iran, bearing with the inscription "Taq-i-Bustan" is one such example. This change was introduced mainly thanks to the Hephthalites, with whom the Sasanids fought for control over Bactria, a region corresponding to the northern section of present-day Afghanistan and southern Uzbekistan, toward the late 5th century.

Based on the sphere of power of the Hephthalites at the time, gold daggers with inset jewels, similar to the Gyerimno dagger, found in Kazakhstan and Lake Borovoye are likely to have been fabricated in Bactria. This estimate is based on the style of metalwork in these daggers, which shows substantial similarities with that developed in regions further West and more particularly the Bactrian region, and also on the fact that the red agates inset on their surface were of Bactrian origin.

Daggers with two ornamental plates, originating in Hephthalite Empire are believed to have been transmitted to the Korean peninsula through the exchange between Sogdiana and Goguryeo. The paper discusses musicians and performers of Sogdian origin depicted on the murals of Anak Tumulus No. 3 from the mid-4th century, and Jangcheon Tumulus No. 1 from the mid-5th century as evidence lending weight to this hypothesis. These people, considered proof to Goguryeo's exchange with Central Asia, were likely to have followed merchants to the ancient Korean state. As demonstrated by the murals in Samarkand and Afrasiab from the mid-7th century, portraying visiting Goguryeo delegations, the ancient Korean state appears to have maintained a steady exchange with Sogdiana, eventually developing a close enough tie to dispatch envoys. The paper discusses similarities between the long swords with an accessory in the shape of letter M, worn by Goguryeo envoys in Afrasiab murals, and the ornamental sword

found inside Takamatsuzuka Tumulus, a Goguryeo settler's tomb in Japan, with accessories in the shapes of the letters P and D.

Finally, the significance of the Gyerimno dagger was examined in relation to other weaponry items that were found together with it. The existence of mounted warriors in Silla, which, during the 5th century, requested reinforcement from Goguryeo, has been confirmed from the late 4th century. The paper discusses how the owner of Gyerimno Tumulus No. 14, as a soldier, probably fought mostly with a spear, and the dagger carried at the waist was used only when he lost grip of his spear or during close combat. The paper argues that the two square ornaments of the ring-hilted sabers of Cheonmachong is in fact a re-adaptation of the waist-carrying style, whose earlier and unmodified version is seen in the Gyerimno dagger.